



다섯번째 이야기

밥은 ‘사랑’이지 말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밥사역 선교사’로 통하시는 신사랑 선교사님 인터뷰는 지난 2월 베트남에서 진행됐습니다. 당시 현지에서 사역 중이시던 한숙영 권사님께서 직접 인터뷰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인터뷰지만 웨프님 인터뷰로 혼돈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여러 가지지만, 답변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제가 해드린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너무 은혜였습니다” ^^ 두 분은 인터뷰 내내 참 별거 아닌 것에도 정말 유쾌한 웃음을 쏟아내셨습니다. 인터뷰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건강한 기운이 제 안에 넘치게 차올랐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을 꼭 한번 뵙고 싶어졌습니다. 뵙게되면 그저 꼬옥 한번 안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지친 하루를 보냈다면, 두 분 인터뷰 녹음 파일을 틀어놓습니다. 딱히 웃긴 얘기도 아닌데, 혼자 씨익 웃으며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웃겨서가 아닙니다. 맑아섭니다. 순수해서. 이 인터뷰는 사실 육성으로 들으셔야 제 맛인데... 아쉽지만 글로 요약해 나눕니다. 글 끝에는 선교사님 부부의 자필 ‘자기 소개서’ 두 편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께 뽀뽀뽀뽀 손편지 쓰신 느낌이 들어 보내주신 그대로 나눕니다. ‘밥’이 가지는 행복감과 신성함을 나눠주신 세 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꾸벅!

(한: 한숙영 신: 신사랑 김: 김소망)

한: 선교사로 나가시게 된 계기는?

신: “처음에 온누리 왔을 때, 많은 사람 만나 전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 갑자기 힘든 일들이 생기고, 일과 관계에서 아주 어려운 일들이 왔어요. 성경일독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와 신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그 때, 아! 보내시려나 보다~싶었어요” (김 선교사님 부부는 2013년 온누리교회 선교본부에 선교사 자원 의사를 알렸습니다.)

한: 섬기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신: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하는 게 힘들었어요. 바람 쐬고 싶을 때,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걸 못해서 힘들었죠. 사람들에게 소속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다른 얘기를 할 것도 없었고. 이제는 조금씩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답은 못찾았지만. 김치를 담가서 팔까 뭐를 팔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여기서 한 권사님의 해설: “제가 먹어본 결과, 김치 사업을 하시면 대박이 날 거라는 확신이...(서로 깔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사역이 수그러들지 않을까”...(깔깔 계속)



한: 섬기시면서 감사하다 싶었던 때는?

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저야 뭐 주부니까 밥해서 먹이는 거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김치를 다 먹여야겠다! 김치를 이틀에 한번씩 담가서 갖다 주고, 잡채를 먹고 하면서, 목사님들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했어요. 주님도 오셨을 때 같이 제자들 많이 먹이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나누면서 먹이는 게 정말 행복해요. 솔직히 제가 모든 사람의 간을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그런데도 다들 맛있게 드셔 주시니) 그저 감사하죠.”

한: 모든 선교사님들께 밥을 해주고 싶다는 비전은 어떻게 품게 되셨나요?

신: “극동방송에서 어떤 권사님의 (밥사역) 간증을 들었어요. 나도 저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믿으면서 밥먹고 교제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말씀도 있고 먹이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가르치는 것 보다는 남 기쁘게 해주고 먹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러시아 가서 학생들한테 메뉴를 바꿔가며 해주니까,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인도에 가서는 일대일 선교사들 하고, 마지막날 같이 간 네 집이 설날 때 처럼 상을 차렸더니,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행복해하시던 모습이 제게 큰 은혜였어요.”

한: 밥 사역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은?

신: “하이퐁에 갔을 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김치하고 다른 반찬 하나 해주는 데, 목사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서, 나도 정말 좋았어요. 학생들은 시골에서 와서 잘 못 챙겨 먹으니까, 근데 또 멀리 가면 (식기 및 장비를 모두 운반할 수 없어서) 원하는 걸 해줄 수 없으니, 김치, 잡채, 해물전 정도만 야채 많이 넣고 오징어에 새우 넣고 해서 주면, 정말 맛있다고~ 맛있다고 하면서 드시는 거 보는 게 정말 좋아요.”

한: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다면?

신: “세미나 장소가 많이 생기면, 좀 더 많이 다니며 (밥) 해줄 수 있으면 싶죠. 그릇 가지고 다니는 게 많이 힘들어요. 조리차량이 있어서 잔뜩 싣고 가서 더 많이 대접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베트남 선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신: “(인터뷰 질문에 모른다 답변 하는 게 미안하신텐 말을 더듬으시며) 제가..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그럼 그냥 부담없이 모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럼, (아주 홀가분한 톤으로 급 전환하시며, 아주 씩씩하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 완전 깔깔!!)”

한: 가장 좋아하는 찬양과 말씀은 ?

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1:6 ? 아니네요. 6:11절인가? 그게 뭐죠? (^.^)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하는. 아, 맞네요, 11장 6절! (직접 찾아 똑똑하게 읽으셨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찬양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한: 한번 불러 보시죠.) 네? (두 분이 함께) 하하하...”

한: 연애결혼 하신 거예요?

신: “저는 교회만 다녔지 엉터리로 다닌거죠. (남편은 제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나를 만났대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남편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랬대요. 음~남편이 저의 천사 같은 사람이라 너무 귀한 남편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죠. (한: 아직도 천사라고 생각해요? 신: (뻘한 걸 물으시냐는 투로) 어쩔 때는 아니고... 두 분이 함께: 하하하!)

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신: “한 권사님이 온다 하셨을 때 제일 많이 생각났던 게, 서울에서 제가 모임 갈 때 마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울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셔서.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셨을까...(울먹) 나는 아니었을거 같은데...(본인 같으면 본인을 선교사로 안보냈을 것 같다는 뜻)...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가졌었고. 주일마다 찬양할 때 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선교사다’ 이렇게 말 못하겠다 싶을 때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냥 거기 가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주고 안아주고 밥해주고 하라 시는 거 같아요.”



한: 자 이제, 남편 되시는 소망 선교사님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아내가 천사 같은 남편이라고 하던데...

김: “저는 그 표현 듣고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한다는 게 내심 감사도 했지만 눈물이 나더라구요.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여러 사람 앞에서 표현하는구나. 이곳에서 더워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고 기도하는 모습, 이곳 센터를 다니면서 그 분들과 가까워 지기 위해 애를 쓰고, 잘 못먹고 고생하는 학생들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와 하더라구요. 여기 계신 분들 자주는 못하지만, 성의껏 음식을 만들어서, 양 보다는 성의를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신나하는 모습 보면 정말 감사하죠.

물론 속으로는 저 돈을 어떻게 다 대나.. 조금만 적게 하면 좋겠는데 하다가도 (모두 깔깔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고...인도하는 목사님들도 왔다갔다 하시다가, 언제 올까나 언제 또 할까나 물으시는데. 그 땐 좀 죄송스럽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왜 (아내와) 같이 안왔냐 꼭 물어요. 한번은 아내랑 같이 간다고 했더니, 식사 준비를 다 해두셨더라구요, 그러다, 아내가 몸이 좀 안좋아서 도저히 못가겠다 하여 혼자 갔더니, 다들 실망하시는데.. 세상에 내가 속이 다 상하더라구요, 나는 왔는데 ㅋㅋㅋ 나는 이게 뭐, 내가 주인공인데 이거 뭐 어떻게... ㅋㅋㅋ 그런 표정들 보면 감사하죠 아내가 인정을 받으니까...

학생들 보면 다 귀하고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 사람들 어딘가 모르게 상처가 있고. 누구한테 마음을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닌거 같거든요. 표정이 안좋으면 고민 같이 하려하고 같이 아파하고 몸이 아프다 하면 같이 기도하고 한사람 한사람 관심 갖고 싶어요.”

한: 아내 음식 중 제일 맛난건?

김: “청국장이 제일 맛있죠. 아내 만나서 처음 접해본 음식이 청국장이었어요. 처음에 그걸 먹고 냄새도 이상한 거 같고, 된장 같은데 된장도 아니고, 콩이 다 살아서 있냐. 자꾸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구요. 잡채는 다들 먹으니깐 내가 먹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못먹을 때가 많아요. 청국장은 (다른 현지인들은 못 먹고) 나만 먹을 수 있으니깐 더 좋고 ㅋㅋ 집에서 조금 먼저 먹고 갈 때가 있어요. 가서 보면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먹으니깐.

아내에게 바라는 점은 건강 잘 관리하는 거. 아들에 대한 근심이 좀 많은 거 같은데... 건강 잘 유지하고 아들도 하나님께 맡겼으니깐. 언어가 안되긴 하지만, 열심히 하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꼭 남자들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사역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인터뷰: 한숙영, 정리: 최승호, 편집: 최지영, 사진제공: 신사랑 김소망)

김소망 선교사님은...

3남1녀중 셋째

파송교회: 온누리교회/ 파송단체: BEE Korea

가족사항: 아들 김도희 34세 미혼 (건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중)

1998년 IMF로 회사 퇴직후 친구 회사 일을 무보수로 도우며 지나던 중 아내의 권유로 아버지 학교와 OMC 참석으로 내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다. 그동안 나의 교만한 신앙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 하목사님의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선교사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서라는 말에 나도 섣뜻 일어났다. 그러나 그때 아내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신앙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너무 재미있던 중 주변의 선교사님 사역을 돕던 중 선교지를 방문하며 교제 중에 언뜻 OMC 때 선교사 지원 했던 기억이 떠올라 그냥 선교사님을 돕는 자도 선교사와 같다는 내 자신의 합리화로 시간을 보냈다. 회사 근처로 이사한다는 핑계로 분당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그곳에서 BEE를 강력하게 추천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2006년 온비아 6기를 시작하여 여름 아웃리치를 베트남으로 결정되어 22명의 팀원과 함께 하노이 공항에 도착하여 버스를 타고 시내에 들어가는 중에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고 있었다. 2000년에 친구들과 여행으로 왔던 곳 6년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이 땅에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해하고, 여러 교회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만나며, 이곳 성도들의 믿음생활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보며, 나는 얼마나 자유롭게 믿음생활을 하는가 나에게도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 이들과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가를 반문하며 결심한 것은 나도 더욱 주님만을 위한 삶을 드리고 싶다고 서원하며 선교사의 마음을 굳게 했던 아름다운 여행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나에게 식어가던 열정을 2013년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다. 어느 시골마을의 작은교회 의료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 현지 목사님의 전화가 선교사님께 걸려왔다. 마침 사역을 정리하고 중보기도의 시간에 비보를 접했다.전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작은 아이의 갑작스런 오토바이 사고로 과다 출혈로 숨을 거두는 순간 가족들에게 “오늘 한국에서 온 언니들이 전해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며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웃리치 일행들은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아주 짧은 시간 그것도 반나절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짧은 메시지가 그 아이의 가슴에 새겨지고, 또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눈을 감은 소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울림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그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각자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나누며, 나는 속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 작은 소녀처럼 복음을 듣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면 주님께서 맡겨 주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내를 설득하고 드디어 여러 번의 면접과 훈련을 통하여 내가 원했던 아니 주님이 원하신 베트남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주님! 제가 선교사로 베트남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리더십과 학생들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겠습니다.



신사랑 선교사님은...

1958년 10월10일 생. 2남 1녀중 막내

1981년 결혼하면서 교회라는 곳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나의 믿음생활은 재미가 없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전혀 없이 그저 억지로 따라가는 정도였다. 그러나 5년 후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부르심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옆집 집사님의 권유로 교회를 다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채찍을 맞음으로 병 나음을 입었다는 이사야 53장 말씀이 어찌나 믿어지는지 몇 시간을 울면서 나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 기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뒤 돌아보지 않고 살아갈 때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세계 선교라는 말을 들을 때 마다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나는 일대일만 꾸준히 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와는 상관 없는 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BEE 공부를 하면서부터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게 되었다. 그때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교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한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었다.

그러면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때를 알게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을 때 주위 상황을 몰아가시는 것을 느끼고 오직 기도로 준비하며, 금식기도원에 들어가 확실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5일을 그렇게 보냈다. 마침내 마지막 시간에 이사야 61장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었다. 나를 그곳에 봉사자로 보내시겠다는 것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라 하실 때 가고 있으라 할 때 있으라는 것. 무엇을 아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곳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곳으로 가서 살자 결심하고 남편과 함께 이곳 베트남으로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살면서 이곳 믿음의 사람들과 친절하게 이웃집 아줌마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을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을 나의 일로 알고, 어찌하면 저들을 즐겁게 할까 고민하던 중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된 후로 나는 그동안 내가 만들었던 것 보다 더욱 기쁘게 김치를 담그며 학생들에게 갈 때 마다 무엇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늘 새로운 것으로 대접하고자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 들은 나를 더욱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나는 깨닫는다.

오늘도 김치를~ 내일은 시골에 가서 교회를 예쁘게 잘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 부부에게 점심간식으로 군만두 대접을 할려고 장을 봤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내 능력 안에서

BEE 소식

1. 지난 4월23일 쌍용공원에서 70여명의 BEE 가족이 모여 즐거운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준비해주신 한숙영 권사님과 숨은 사역자님들께, 진행하느라 수고하신 사랑하는 성태 형제님, 진영 형제님께 특별한 감사 드립니다.
2. 이번 주 토요일, 4월30일 온비아 갈라디아서 세미나를 수료한 학생들과 FT, FA가 모여 BEE CENTER에서 수련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3. 신경진, 한순정 사역자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